

베드로전서

■ 고난 중의 기쁨 (221012)

1. 본문의 문맥

- 1.1.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, 거룩하게 살아가라!
- 1.2. 외인들의 비난에도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!
- 1.3. 교회 내적으로는 ()하고, ()으로써 서로를 사랑하라!
- 1.4.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일을 계속해서 수행해 가라!

2. 고난을 맞이하는 태도

- 2.1. "이상이 여기지 말라"(4:12)
 - 2.1.1. 우리 믿음의 연단은 반드시 필요한 것
 - A. 이를 위해 성도의 삶에는 "()"이 필수
 - B. 그리스도께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
 - 2.1.2. 우리의 믿음은 고난 가운데 단련되고, 입증됨
- 2.2. "즐거워하라!"(4:13)
 - 2.2.1. 고난을 일부러 자초하는 자학적인 그리스도인?
 - A. 고난 그 자체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해야 함 → ()의 기도
 - B.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유익이 있다면 고난을 피하지 않음
 - 2.2.2. 고난에 있어서 ()의 역할
 - A.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고난의 길에 참여함
 - B. 그리스도와 고난의 길을 함께하셨던 성령이 동행하심(4:14)
 - C. 성령께서 고난의 끝에 맛보게 될 영광으로 인도하심

3. 두 가지 종류의 고난

- 3.1. 어리석게 자초하는 고난(4:15)
 - 3.1.1. 살인, 도둑질, 악행,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
 - 3.1.2.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것(2:20)
 - 3.1.3. "남의 일 간섭(ἄλλοτριεπίσκοπος)"
 - A. "의사처럼 회진하면서 맥박을 짚는 일"
 - B. 시시콜콜 관심을 가지면서 판단하고 다니는 일 →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(살후 3:11)
- 3.2. 성도로서 받는 고난(4:16)
 - 3.2.1. "()"(Χριστιανός)—경멸적인 칭호
 - 3.2.2. 하지만 경멸하는 세상에서 그 이름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

4. 고난과 심판

- 4.1. "하나님의 집"(4:17) =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
 - 4.1.1. 이들도 심판에서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님
 - 4.1.2. 다만 의인은 "거우 구원"을 받게 됨(4:18)
 - 4.1.3. 여기서의 강조점은 "()"—어떤 상황에서도 결국엔 구원을 받게 됨
- 4.2.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불경건한 죄인들은 천국에 설 자리가 없음
- 4.3. 고난 중 선행의 신학적 동기: 하나님의 ()과 전폭적인 의탁(4:19)